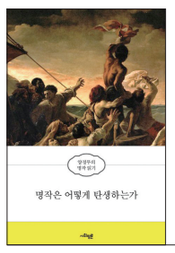
석굴암은 어떻게 명작이 되었나



명작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양정무 지음
사회평론 / 1만6800원

석굴암부터 백남준 '다다익선'까지
미술사학자 양정무가 꼽은 '명작'
"종교 의례서 느끼는 깊은 감정"

배희정 객원기자 hbpress@hyunbul.com



경주 석굴암 본존불. 사진 출처=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석굴암과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모네의 수련 연작, 그리고 김환기의 유니버스와 백남준의 다다익선. 누구나 명작이라고 부르는 이 작품들이 어떻게 명작이 됐을까.

미술사학자 양정무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명작의 조건을 다양한 시각으로 탐구한 〈명작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펴냈다.

저자는 이 책을 '통사 중심의 미술사를 보완하는 책'이라고 설명한다. 2016년부터 써 오고 있는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된 것과 달리, 이 책은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각 작품을 개별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저자는 책에서 '미술이 꼭 아름다워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지며, 미술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이끈다. 즉,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미술이며, 신비로움과 경외감, 종교적 의례에서 느끼는 깊은 단계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미술 작품이야말로 명작의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저자가 꼽은 첫 명작은 석굴암이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에서 처음 본 석굴암에 압도돼 "머릿속을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감탄은 단순히 규모나 형식 때문만은 아니다. 모스 경도 6으로 강철만큼 다루기 힘든 화강암을 자유자재로 다룬 표현력 때문이다. 한 번 깨지면 복구가 힘든데다 입자도 굵은데 꼬불꼬불한 나발과 부드럽게 흐르는 얼굴의 곡선을 완벽하게 조각해냈기 때문이다.

"눈썹부터 입술까지 유려한 선의 흐름을 보면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유연하다. 화강암이란 까다로운 돌을 이렇게 다룰 수 있다는 데 경외감이 느껴질 정도다."

하지만 책은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석굴암 본존불 뒤편에 미완성 흔적이 있다는 점을 짚어낸다. 또 시스티나 성당 벽화에 남은 어색한 손동작과 얼룩, 시력을 잃어가며 수련 연작을 완성한 모네의 절실함 등에서도 발견되는 명작의 불완전성을 언급하며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 작품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끈다"고 밝힌다.

750년경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굴암의 천장과 125년 지어진 로마의 판테온 천장과 모양이 놀랍도록 닮았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또 지구 반대편의 판테온이 석굴암 조성에 영감의 원천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서울대 이주형 교수의 주장도 소개한다.

저자는 석굴암 외에도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테오도르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 모네의 '수련' 연작과 20세기 한국 예술 중 김환기의 '유니버스'와 백남준의 '다다익선'을 명작으로 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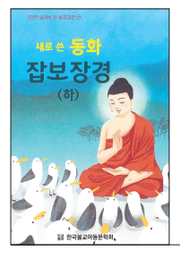
이 가운데 1003대의 TV 모니터를 불탑 형태로 높이 18.5m에 이르게 쌓은 대형 설치작품 '다다익선'을 소개하며, 백남준의 "미래의 모든 벽이 스크린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떠올린다. 저자는 오늘날 스마트폰 시대에 이 작품의 의미를 더욱 실감한다고 고백한다.

책은 당대에 불경하다는 비판을 받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과 조선 후기 겸재 정선(추정)의 그림에 등장하며 잊히진 않았지만 1910년대 사진엔 쇠락한 모습을 보였던 석굴암 사례를 들며, 명작이 늘 환영받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즉, 명작은 시대와 갈등하며 수많은 굴곡과 오랜 시간의 도전을 견뎠기에 오늘날까지 높이 평가될수록 그 의미가 더욱 값지다는 점을 일깨운다. 저자는 이러한 명작의 형성 과정을 끊임없는 논쟁과 재탄생의 과정으로 보며 자신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위대한 미술, 즉 명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논쟁 속에서 태어나 논쟁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논쟁을 통해 작품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작품에 합당한 서사를 입히는 일이 미술학자의 숭고한 임무다. 그리고 미술사는 이런 논쟁을 학술적으로 풀어내는 학문이며, 나 또한 이런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겠다."

동화로 읽는 〈잡보장경〉



새로쓴 동화 잡보장경(하)
한국불교아동문학회 엮음
도서출판 한국불교아동문학회 / 1만5000원

지난해 이어 하권 출간
8월 30일까지 독후감 공모

〈잡보장경〉은 121가지의 짧은 설화를 통해 다양한 교훈을 전하는 불교 경전이다. 인연담과 비유담을 통해 착한 일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가르침을 전하며 불교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이러한 〈잡보장경〉을 바탕으로 한국불교아동문학회(회장 권영주, 이하 문학회)는 지난해에 이어 〈새로쓴 동화 잡보장경〉 하권을 펴냈다. 문학회는 불교의 가르침을 문학 작품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널리 전하기 위해 1982년 설립된 이래, 2009년부터 경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개작한 동화책을 꾸준히 간행해 왔다.

이번 책은 조계종 문화부의 지원으로 출간된 문학회의 17번째 동화책으로, 동화계 원로 신현덕 고문의 검토를 거쳐 지난해에 이어 원작으로 선정한 〈잡보장경〉을 개작했다.

〈잡보장경〉은 산스크리트어 원전을 원위(元魏)의 길가야(吉迦夜)와 담요(曇曜)가 한문으로 번역한 경전이다. '잡다한 보물을 담은 경전'이라는 뜻의 불교 설화집으로 121편의 이야기가 10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연과 비유로 담고 있다.

이번 하권에는 권영주 회장의 '번개천둥', '아라한이 된 악기'를 비롯해 문학회 소속 작가 43명이 새롭게 재구성한 71편의 동화가 담겼다. 특히 각 편을 책 2~4쪽 분량으로 간결하게 담아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전태일통신〉과 〈웹진 문화다〉 등에 작품을 연재한 전솔이 일러스트레이터가 컬러 삽화〈사진〉를 그려 아이들의 이해를 돕는다.

권영주 회장은 "〈잡보장경〉은 효도를 권하고, 보시 등의 선행을 닦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도록 이끄는 경전"이라면서 "아이들은 물론 어른이 읽어도 마음가짐을 맑게 하고 삶의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이 설화를 주제에 맞게 각색해 심혈을 기울여 새로쓴 이 책이 널리 읽혀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좋은 심성을 기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학회는 8월 30일까지 초등학교 전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새로쓴 동화 잡보장경〉 하권의 독후감을 공모한다. 200자 원고지 10매 이내의 분량이며, 시상은 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문학회는 7월 17일 공주 신원사에서 '아함경 동화 개작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문학회는 내년에는 〈아함경〉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동화책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

배희정 객원기자

귀농한 기업가의 '마음공부'



시골 농부의 마음공부
김일문 지음
운주사 / 1만7000원

교법·수행 핵심 한 권에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종교의 경계를 넘어,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사는 길을 제시한다.

김일문 배달인성개발원 대표가 최근 펴낸 〈시골 농부의 마음공부〉는 삶의 기복 속에서도 고요한 마음과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이끄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실참수행을 망라한 책으로, 3년간의 집필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김일문 대표는 도시에서 기업 대표이사로 일하다가, 60대를 앞두고 마음공부에 전념하고자 귀촌한 자칭 '시골농부'다. 30대 초반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에게 '일오(一悟)'란 법명을 받고 '삼세근(三世根)' 화두를 참구했고, 고심정사 불교대학을 수료하고 포교사 자격도 취득하는 등 불교 공부에 매진해 왔다.

'부처님의 교법과 수행의 핵심을 한 권에 담다'란 부제가 붙은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각 장에는 저자가 접한 책과 강연 중 가장 뛰어난 내용을 선별해 담았고, 모든 인용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필자의 견해와 일치하는 부분은 요약·정리해 주제별로 배치했고 곳곳에 저자의 의견을 덧붙인 것이 특징이다.

책은 부처님의 출생과 출가, 고행과 성도, 전도 과정, 그리고 승단의 성립 과정을 다룬다. 또 초기 불교에서 강조된 호흡 수행을 아잔 브람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예비단계와 16단계로 소개한다. 아울러 중국에서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에서 번역 오류와 교리의 오해가 반복됐음을 지적하고, 선불교가 강조한 돈점 논쟁이 인도 불교에는 없던 것임에도 중국과 한국 불교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책 판매 수익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면서 "이 책이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을 따르려는 이들과 고통과 혼란 속에서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모두에게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한다.

배희정 객원기자

화제의 신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책!
실천 가능한 기도의 방식과, 수행의 가치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



수호신 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묘장 편저 | 112쪽 | 10,000원

"기도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수호신 기도'는 그 시작을 돕기 위해 집필된 책입니다"

현재 연화사 주지.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 불교신문 논설위원. 아이티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태국 대홍수, 네팔 대지진, 포항 지진, 모로코 지진에 재난구호활동과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지원 활동을 하였다.
저서로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가 있으며, 나는 절로 초계종사회복지재단 대통령상 수상(2024),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대상을 수상(2024)하였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